

화장실 문화수준 높이기 심포지엄

글 편집부

『아름다운화장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강원도에서 선정한 아름다운화장실 BEST10 및 유공자 포상과 심포지엄이 진행되었다.

행사개요

일 시 : 2001년 12월 7일(금) 13:00
장 소 : 두산리조트 다이아몬드 홀
주 최 : 강원도

1부 행사

맑은물보전과 문남수사무관의 사회로 진행된 1부행사는 김진선 강원도지사(김태겸 행정부지사 대독)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개회사에서 김진선 강원도지사는 명실공히 ‘한국관광의 1번지’로서 강원도의 위상을 고취하고 환경과 관광은 21세기 강원도의 제1의 가치이며, 아름다운화장실은 가장 강원도적인 것이라고 강조하였다.

이어서 박경립 심사위원장(강원대 교수)의 심사평이 이어졌다.

박경립 교수는 5가지로 강원도가 추구하는 화장실에 관해 설명하였는데 첫째 사용자에 대한 배려가 있는 화장실을 꼽았고, 둘째로 강원도의 환경을 생각하는 친환경적인 화장실이고, 셋째 깨끗하면서도 아름답게 꾸며진 쾌적한 화장실, 넷째 유지관리가 용이하고 에너지 절약형의 경제적인 화장실이며, 다섯 번째로 강원도라는 지역의 역사성과 지역성이 반영된 강원도만의 독특한 문화를 이어가는 특색과 테마가 있는

화장실이라고 설명하였다. 끝으로 아름다운화장실을 만드는 것 못지 않게 지속적으로 유지관리하여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이어서 아름다운화장실 BEST 10시상과 유공자에 대한 표창이 진행되었고, 1부 행사의 끝으로 조의현 소장(산본연구소)의 특별강연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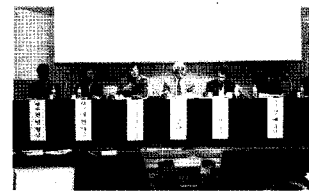
조의현 소장은 특별강연에서 유지관리의 체계화에 대해 설명하고 설계자와 시공자, 관리자, 이용자 모두가 원활히 공생의 관계를 유지해야만 보다 효율적인 화장실 유지관리 문화가 정착되어질 것이라고 말하고, 체계화된 유지관리매뉴얼의 작성과 유지관리가 배려된 화장실, 이용자의 이용매너 향상, 업무의 연속성유지를 들었고 앞으로 화장실의 안전문제와 더불어 생각하는 유지관리가 필요하다고 발표하였다.

2부 행사

아름다운화장실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란 주제로 박경립 교수의 좌장으로 2부 심포지엄이 시작되었다. 김형준(강원대 문화인류학과)교수의 아름다운화장실 무엇을 관리할 것인가란 주제로 발표가 이어졌다. 김형준 교수는 지속 가능한 관리를 위해 고려해야할 것에 대하여 강원대학교에 재학중



2회 아름다운화장실 대상 시상 및 심포지엄



▲ 심포지엄 발표자들, 좌로부터 권영철교수, 이왕기교수, 김형준교수, 박경립교수, 염소호교수, 김혜숙교수, 이순선과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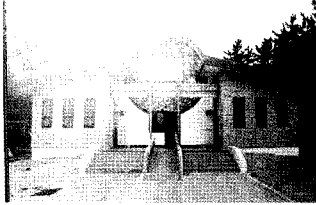
▲김진선 강원도지사를 대신하여 개회사를 하고 있는 김태겸 행정부지사.



▲강원도 각 시·군의 공무원들이 유공자 표창을 받고 있다.



◆강원도 아름다운 화장실 Best 10에 선정된 수상작과 전통화장실 사진



인 13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화장실 용품/시설에 대한 이용자의 시각이라는 설문에서 화장지와 휴지통은 135명중 134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함으로써, 이 품목에 대한 이용자들의 시각이 거의 일치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고 상당수의 조사대상자가 가득 찬 휴지통을 불만의 대상으로 지적했다고 한다. 즉 다시 말해 화장실의 이용 시 가장 불편한 점은 화장지의 미비와 악취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다음으로 반드시 필요한 것과 있으면 좋은 것이라는 설문에서는 음악과 액자를 불필요한 시설로 간주하는 응답비율이 상당히 높았다고 한다. 우리가 공공화장실을 개선할 때 신경을 썼던 부분이 액자와 음악과 같은 부분이었기 때문에 더욱 흥미롭다고 할 수 있다. 액자, 음악, 화분과 같은 장식물이 이용자들에게 가장 깊은 인상을 심어주지만 필수적인 구성요소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고 하였다. 화장실에 가장 필요한 것에 대한 설문 중 유아시설, 생리대 자판기 같은 남·녀 간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 그리고 여성들에 의해 지적된 주요문제점을 살펴보면 화장실 수의 부족과 줄서기 문제, 좁은 공간으로 인한 물건을 놓을 자리가 부족하고, 잠금 장치의 파손 및 휴지통에서 나는 악취 등을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남·녀간의

성적인 차이에 대한 보다 사려 깊은 검토가 필요함을 알 수 있다.

화장실을 청결하게 사용하고 있는냐는 질문에서는 다수의 학생이 청결히 사용하였다는 대답을 하였지만 조사대상자 중 일부는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험이 있음을 인정하였는데 침 뱉기, 휴지버리기, 화장지 가져가기 등의 부적절한 행동을 했던 이유로 이들은 화장실의 상태를 지적하였는데 화장실이 더럽고 담배꽂초와 가래침 등이 많이 있어 나도 가래를 뱉고, 물도 내리지 않았다는 한 조사대상자를 예로 들면서 화장실이 더러웠기 때문에 별 죄책감을 느끼지 않고 부적절한 행동을 했다는 말처럼 완벽한 설비보다는 관리가, 특히 지속 가능한 관리가 보다 나은 화장실의 정착을 위해 중요한 요소임을 말해준다.

물론 제한적인 조사대상이지만 앞서 우리가 화장실 문화개선을 보여주기 위한 시설의 확충이었다면 이제는 화장실을 사용하는 이용자의 시각을 수용하고 현재의 상황을 가장 잘 아는 관리자의 노하우가 합쳐지고 전문가적인 지식이 합쳐지게 될 때 아름다운화장실의 건립 및 유지가 가능 할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문화코드로 읽는 화장실 삼국지와 유지관리 측면에서의 환경 친화적인 아름다운화장실 계획은 다음호에 연재됩니다.